

# 실핏줄 역할하는 유통전사



좁다란 골목, 수없이 오고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쇄용지를 가득 실은 화물용 오토바이(짐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 일명 삼발이)가 매끄럽게 틈새를 빠져나간다.

이 땅에 인쇄업종이 생길 때부터 그 호황의 빛과 불황의 그늘을 같이 해온 배달원(일명 유마꾼)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힌 중구 인쇄골목을 누비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들이 사용하는 배달장비는 달구지였다. 그것도 동물이나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온전히 인간의 팔다리 힘에 의해 굴러가는. 이 후 짐자전거가 달구지의 바통을 받아 뒤를 잇더니 1990년대 초반부터는 삼발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오늘도 중구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삼발이는 국내 인쇄산업의 심장부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 물론 중구 이외의 원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는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 소속 파와 프리랜서 유마꾼

중구의 유마꾼들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업사 등에 소속돼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 소속은 되어 있지만 월급이 아니라 배달량을 무게로

환산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돈은 일의 건수대로 받지만 특정 재단업체, 제본업체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그 업체 일을 주로 담당하며 삼발이도 해당업체에 보관하는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마꾼은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일하는 프리랜서들이다.

지업사 소속의 배달원들은 인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종이를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프리랜서 유마꾼들은 각 인쇄업체에서 인쇄 중간과정에 필요한 종이의 이동이 필요로 할 때 즉, 제단업체나 코팅업체 등으로의 배달을 주로 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마꾼들은 처음에는 업체 소속으로 시작해 일을 배우지만 몇 년 후에는 대체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달 요금은 평균 한 건당 4천원이다. 짐의 양이 많거나 중구내에서도 멀리 이동할 때는 5천원도 받는다.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평균 단가 3배를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래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 인쇄업 팔다리 역할 '김씨', '이씨'...

중구에서 이러한 유마꾼을 부르는 이름은 딱히 없다. 주

로 휴대전화를 통해 이들과 접촉하는데 전화번호를 적어 둔 연락처에도 '김씨', '이씨', '박씨' 등으로 기재돼 있을 뿐 특별한 명칭은 없다. 일이 필요할 때면 근처에 대기중이거나 이동중인 배달원을 직접 부르기도 하며 아니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만이다.

중구에 있는 대부분의 인쇄인들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인쇄업의 팔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구에서만 30년째 인쇄업을 하고 있다는 L씨는 “중구 인쇄골목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분들이 없으면 납기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쇄의 흥망성쇠와 함께 몇 십 년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마꾼들의 평균 나이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지요. 50~60대들이 상당히 많아 40대도 젊은 축에 들어갈 정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

## 마지막 달구지 유마꾼 '정씨'

중구에서 인쇄업과 인연을 맺은 지 20년이 되어간다는 김철수씨를 통해 마지막 달구지 유마꾼이었던 '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경북 영주 출신의 '정씨'는 힘이 장사여서 지역 씨름왕 출신으로 알려졌다”는 게 그에 대한 첫 소개였다. “180센티미터 정도의 험철한 키에 당당한 체격을 한 '정씨'는 술을 먹으면 자유당 시절 때는 한창 힘이 좋았지. 그때는 한 번에 여러 명을 상대해 싸워도 저본 적이 없었다니까”하는 무용담을 자주 들려주곤 했다고 한다. 특히 유마꾼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달구지로 이삿짐을 마포까지 나르는 등의 부업도 가끔 할 정도로 달구지 일을 좋아했다는 게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다. 또 술을 워낙 좋아해서 하루에 평균 4~5병 정도나 마셨다고 한다. 평생을 인쇄와 함께 해 온 '정씨'는 후두암으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중구에는 달구지 유마꾼이 자리를 감추게 됐다.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대문·동대문 시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게를 배달도로 사용하는 이들은 지게를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권리금만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쇄골목에는 특별한 자릿세나 권리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인쇄경기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쇄업 비수기인 여름에는 유마꾼의 일감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성수기인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등의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공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규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기다려야만 하

는 일의 특성상 자투리 시간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유마꾼들에게 이런 자유시간은 그리 밝지 않은 여가활동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이 없을 때에 화투와 같은 도박을 많이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음주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한겨울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술을 더욱 많이 찾게되고 이에 따라 몸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구 인쇄골목의 '김씨', '이씨', '박씨' 등은 지역 특화산업인 인쇄업의 발전을 이끌 어온 한 주체이며 앞으로도 인쇄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싹틔움의 역할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조갑준기자〉



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배달 중에 크고 작은 사고가 생겨 중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또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와서 다시 물건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유마꾼에게는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또 다른 인쇄업체 K 사장은 “한 차에 4~5천원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 물건이 상하면 그 비용은 아무리 적다해도 배달료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인정상 어려운 일이죠.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닐 테고 일하는 도중에 벌어진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요”라며 너털웃음을 웃는다.